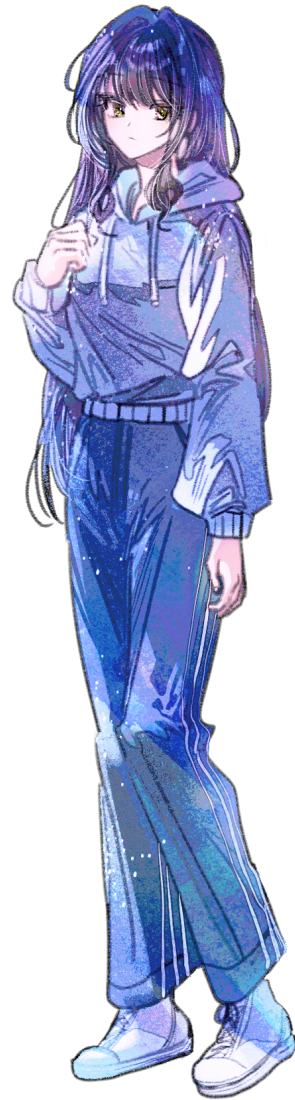


채도아

1. 외관



허리까지 내려오는 생머리 흑발에 금안. 차분한 성격에 어울리는 고양이상. 루나일 때에 비해, 외관 분위기가 꽤 다른 편이다. 옆머리의 웨이브는 늘 신경 써서 고데기로 말고 다닌다. 캐주얼한 후드티, 운동복을 주로 입고 다니지만, 좋아하는 패션은 니트류. 특별한 날에만 꾸민 옷을 입고, 다른 날에는 귀찮아서 활동하기 편한 옷을 입는다. 급한 호출로 루나로 변신했을 때도, 다른 옷보다 운동복이 갈아입기 수월하다는 것도 한몫한다. 키와 몸무게는 루나 정보대로, 25살, 172cm, 64kg.

2. 정보

현재 대학교 **3학년**. 원예조경학과에 다니고 있다. 본래 식물을 좋아해서 원예과에 갔다가보다 **19살**에 각성, **20살**에 히어로 데뷔를 했더니 생각보다 아는 꽃이 별로 없어 능력 사용에 지장이 있었다. 때문에 지식을 늘려 이능 사용에 반영하고자, **21살**에 원예조경학과에 입학한 것. 중간에 히어로 활동으로 너무 바빠 반학기 휴학해서 현재 **3학년**으로 다니는 중. 물론 학과 친구들은 아무도 도아가 히어로 루나인 것을 모른다. 학교를 조용조용히 다니려고 노력하지만, 특유의 도도한 태도와 예쁘장하게 생긴 외모로 인기가 많은 편이다. 본인은 그것을 귀찮다고 생각한다. 당장 변신해서 출동해야 하는데 오늘 일정 없냐고 물어보는 지인은 짜증나는 법이다.

3. 비설

채도아의 부모는 이능 각성에 집착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낭만있고 각광받는, 선택받아야 할 수 있는 직업이 히어로였기 때문에 일종의 학구열과 비슷한 열의를 가진 것이다. 그들은 채도아에게 강한 감정을 폭발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서포트했지만, 도아 자체가 차분한 성격이었기에 특별히 감정적으로 날뛰는 경우는 없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15살이 되었을 무렵 감정 파동 수치를 300% 이상 올린 적이 있으나 각성하지 못했고, 이후로 그들의 집착은 심해져만 갔다.

채도아가 각성한 것은 19살. 도저히 견디다 못한 부모가 이래도 각성을 못 한다면 두고보자는 말을 남기고 그녀를 숲 속 폐건물에 묶어 버리고 떠났다. 채도아는 정말 그 순간 버림받은 줄로 알았으나, 사실 부모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져도 돌아오지 않는 부모와 각종 벌레, 캄캄한 어둠에 공포에 질린 채도아는 점점 감정이 격해졌고 마침내 각성에 성공한다.

어두운 밤이 무섭다면, 암흑에 적응하면 돼.
감추기만 하지 말고 피어나면 돼. 짙은 어둠이라도 무서워할 건 없어.

각성 순간, 발 밑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달맞이꽃이 불 번지듯 피어올랐다. 금발로 변한 도아의 모습을 보고 부모는 환호하며 그녀에게 달려왔고, 곧 풀어주었다. 그대로 도아를 협회로 데려간 부모는 협회 상대로 쓰는 계약서에서 자신들에게 채도아 히어로의 급료를 30% 떼어 달라고 요구했고, 여러차례 논공행상 끝에 채도아는 자신의 부모와 연을 끊게 되었다.

당신들이 한 건 아동학대라고! 난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 스스로 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는 내 눈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각성은 나 스스로 한 거지, 당신들 덕분이 아니야.

- 19살: 각성, 협회와 히어로 계약 체결
- 20살: 히어로 데뷔
- 21살: 대학교 입학
- 23살: 휴학(이능 발전 목적)
- 24살: 복학
- 25살: 현재. 대학교 4학년으로 재학 중.